

세계체제와 종속반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임 현 진**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우리식 사회주의’의 성과
와 한계 |
| II. 종속반전 : 사회주의적 종속 | V. 맷 음 말 |
| III. 사회주의적 발전의 정치경제 | |

“...발전되지 않고 뒤떨어진 나라들의 사회주의는 후진적이고 저 발전된 성향을 강력히 갖는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사회적, 정치적 및 지적 생활의 일반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의 성숙도에 달려있다는 맑스주의의 근본 명제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Baran, 1967: viii).

I. 문제의 제기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진 ‘현존 사회주의’권의⁽¹⁾ 개방과 개혁은 20세기 말을 세계사의 중대한 전기로 만든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소련, 중국 및 동구 국가들에서의 일련의 사태는 그러한 횡기적 변화의 전 반적 방향과 내용을 어느정도 추정가능케 해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바탕위에서 탑스주의·레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공산권문제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1)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의 과도적 구성체로서 오늘날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칭하는 Bahro(1977)의 표현이다. 필자는 사회주의는 여러가지 사상적 전통, 이론적 경향 및 실천적 운동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최소한 세가지 큰 조류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② 비모험적 사회민주주의, ③ 비맑스주의적 민주사회주의(이에 관해서는 Wright, 1987 참조). 이러한 구분에 의해 현존 사회주의의 위상과 변화도 사회주의의 강화인가 아니면 약화인가라는 척도위에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총체적 평가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민주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으로서 공산당에 의한 권력 독점의 포기로 특정지워진다. 소련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확대와 아울러 국가산업의 민영화가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국가사회주의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 한편 중국은 이른바 ‘신 4화노선’(계급자유화·경제 시장화·정치다원화·군대국유화)에 반대함으로써 공산당에 의한 지도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자본주의적 시장제도와 다원주의의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해도 소련 및 동구권의 이념적 변신에 대해 가장 공포를 느끼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쟈우세스쿠정권의 몰락 이후 북한은 쿠바와 함께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사회주의의 전복을 기도하는 자본주의진영의 음모라고 격렬히 비난한 바 있다. 이점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여 반사회주의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김일성(1990:29)의 근래의 시정연설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사실상 지구상에 북한과 같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노선을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지도이념에 의해 철저히 추종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도 없을 것 같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은 수령의 영도에 의한 집단주의의 기초위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가능케하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와 전인민적 소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²⁾ 물론 북한은 주체사상이 표방하는 자주성의 원리가 폐쇄주의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이 결과할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공식적 명분이외에도 김일성부자 중심의 세습적 통치체제의 붕괴라는 내밀한 우려로 인하여 개방과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은 ‘결별사회주의’(breakaway socialism)의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의 성과와 문제점을 내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매우 흥미있는 하나의 중요한

(2) 이에 관해서는 김정일(1991)을 참고할 것.

사례가 되고 있다.⁽³⁾ 특히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하여 자력갱생적 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고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최근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단절(delinking)에 의한 사회주의적 종속반전(dependency reversal)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 의거하여 해방이후 북한의 과거 45년간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동태와 모순이 분석되고 있다. 필자의 논의의 축점은 과연 북한이 국제정치경제체제로부터 어느정도 탈(脫)종속적이었으며 또한 사회주의 발전의 정치경제적 공과는 어떠했든가에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은 사회주의적 종속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왔다. 둘째로, 북한의 자력갱생은 현재 사회주의적 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북한은 여러가지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종속반전에 성공적이지 못해왔다.

이러한 본고의 목적을 위해 제 2 절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의 종속반전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 3 절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자력갱생적 사회주의적 발전의 실상과 허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제 4 절은 결별사회주의의 맥락에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의의와 공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II. 종속반전 : 사회주의적 종속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 직후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의 참여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해서 설립된 COMECON(Communist Economic Conference)의⁽⁴⁾ 회원이 되는 것도 거부하였다. 이를 두고 Halliday(1981:896)는

(3) 최근 북한연구에서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에 비추어 그 결과를 검토하는 ‘내재적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예컨대, 송두율, 1988). 그러나 이 방법도 ‘선전과 선동’으로 채택된 문건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괴리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 친(親)사회주의적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

(4) COMECON은 서방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원래는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로 호칭되었다. 당시 회원국으로는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청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몽고, 월맹 등을 열거할 수 있다(유고는 준회원국).

북한이 야말로 외부로의 개방을 가져다 줄 폐해를 고려하여 단절(delinking)을 통한 발전전략을 최초로 시도한 혁명후기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무역봉쇄를 받고 있던 실정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과 통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은 COMECON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국경제가 다른 동구국가들의 경우처럼 소련의 전일적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다.⁽⁵⁾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세계시장의 국제화 논리에 합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데에는 정권수립 전후의 국제적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함께 그들나름대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의지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중요한 문제로서 두가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국내적 자급자족(autarchy)에 가까운 폐쇄적 단절을 통해 달성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력갱생의 이상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경제건설이 상당한 정도로 공산권에 대한 의존에 힘입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가지 서로 관련된 의문을 명확히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여기서 과연 단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min(1989:62-67)에 의하면 단절이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가치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경제의 필요에 의해 국제경제의 유통 및 교환관계를 가동시키는 자기중심적인 발전으로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민중적 내용을 지니는 것이 단절전략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단절전략이 오타르키와 같은 폐쇄적 자급자족적 경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전략은 나라의 크기가 작을 경우 부족한 자원, 희소한 자본, 그리고 낙후된 기술의 격차를 메우기 위하여 국제시장에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허용한다. 특히 ‘문화적 민족주의’란 명분아래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과학, 기술 및 사상의 도입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단절전략이다. 그러므로 이 전략은 자본, 시장, 노동력, 과학기술 및 천연자원에 대한 국내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그 성

(5) Page(1962: Chaps 1 and 2)의 주장처럼 당시 북한경제가 실질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경제체계에 통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다소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폐가 판가름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저발전된 주변부 국가가 종속의 극복을 위하여 구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 첫번째의 종속반전의 방법이라면(예컨대, 쿠바, 북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참여하면서 국가에 의한 정책적 대응에 의해 종속반전을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법이다(예컨대, 대만, 브라질, 남한). 이러한 종속반전의 관점은 역시 어느 만큼 단절전략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종속과 자립은 하나의 연속선 위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그것이 각각 저발전과 발전에 반드시 대칭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라질의 '종속적 발전'에 관한 Evans(1979)의 연구는 종속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에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큐바의 '자립적 발전'에 관한 Ray(1983)의 분석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이탈이 종속의 제거를 확실히 담보해주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지적해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종속반전의 중요한 보기로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실상 북한은 자본주의적 종속을 탈피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종속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또 다른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현실적으로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이은죽, 1988). 이에 관한 명확한 경험적 논증을 위해서 사회주의적 종속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⁶⁾ 우선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종속의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Ray(1979)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분석하지 않는 기존 종속이론의 좌파적 편향성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종속이냐 비종속이냐의 이분법적 논의는 허구적인 것이며, 따라서 종속의 형태와 정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적

(6) 일단의 학자들은 종속의 개념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본주의적 저발전에 연관된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역사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Bodenheimer, 1971; Duvall, 1978 참조). 그러나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종속이 제국주의 일반이론의 중심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련과 동구국가들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lark and Bahry, 1983; Galtung, 1971, 1976; Gochman and Ray, 1979; Mahler, 1980 참조).

차이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점에서 Packenham(1983:39)은 “자본주의 하에서 권력의 불균등이 펼연적으로 착취적이고, 반면에 사회주의—‘진정한 사회주의’—하에서는 그러한 권력의 불균등이나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종속의 이분법적 개념화에 기초한 오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적 저발전을 설명하는 ‘전체적 종속’(holistic dependency) 개념 대신에 자본주의 세계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계체계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분석적 종속’(analytical dependency) 개념을 제안한다. 이 후자의 개념은 경험적으로 반증될 수 있는 자료, 개념 및 변수의 제시에 의해 사회주의내의 지배—종속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속반전의 가능성과 한계도 검토할 수 있는 논의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종속의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내의 지배—종속 관계 외는 다른 이론적 지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Duvall, 1978:58).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적어도 원칙상으로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을 배제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본축적, 계급관계, 권력구조, 국제분업 및 무역거래에 있어 자본주의와는 별개의 대안적 생산양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Galtung(1971, 1976)의 ‘사회적 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의 개념은 사회주의적 종속과 자본주의적 종속의 질적 차별성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먼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에서 연유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사회주의 세계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사회주의 종속에서도 ‘종속의 증후군’(dependency syndrome)이라 할 수 있는 왜곡된 산업구조, 불평등의 재계총화 및 정치적 억압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자본주의적 종속과는 다른 특징에 기인한다고 본다. Galtung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종속의 특성은 소련이라는 중심부와 동구의 위성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친소적인 지배엘리트의 형성에 의한 정치적·군사적 지배에 있지 불균등한 교환관계를 통한 경제적 착취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⁷⁾

(7) 소련과 동구지역사이의 지배와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Zimmerman, 1978 및 Kim, 1982를 볼 것. 여기서 소련의 동구지역 지배가 그것의 세계정복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보유지를 위해 완충지역을 만들려는 의도의 결과인가에 관해서는 여터가지 상반된 논의들이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이 보다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Zaslavsky, 1984~85:166-7을 참고하라.

이러한 고찰를 통해 하나의 흥미있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독립적인 세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Mandel(1978)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구조는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철저한 계획경제에 의해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Chase-Dunn(1982:46-47)은 반박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들도 세계시장을 향해 상품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의 변화가 국내의 그것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불황기에 자본주의 중심부국가들은 그 타개책으로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도 역시 군비를 증강시킬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그는 본다.

Wallerstein(1979b)이 주장한 바 있듯이,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저발전 국복을 위해 채택된 일종의 상승이동의 전략이다.⁽⁸⁾ 따라서 혁명후기 국가들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압력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국가체계에 의한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독자적인 세계체제를 형성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Skocpol and Trimberger, 1978). 과거 중소분쟁, 베트남의 컴퓨터전쟁, 작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그리고 소련과 통일독일의 협력관계 등이 국제적 국가체계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COMECON의 실질적 해체, 동서교역의 증대, 그리고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선진서방 7개국(G7)의 투자와 원조 등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우를 조명하기 위한 개념들로서 사회주의적 종속을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의 특성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경제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군사구조에 통합되어 있다는 이중성에 있다.⁽⁹⁾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소련에 대한 정치·군사적 의존이 감소하고 있는 대신에 세계시장을 겨냥한

(8) 이 절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파악하는 Giddens(1973:252)의 견해는 최근의 사회주의의 변혁양상에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유의미한 진술이라 볼 수 있다.

(9) 이 논의는 Wallerstein, 1979; Chase-Dunn and Rubinson, 1979, 1982에 기반하고 있다.

상품생산을 위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참여의 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생산양식을 지켜나가지 않는 한 사회주의적 종속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종속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도 전망된다.

III. 사회주의적 발전의 정치경제

가. 주체사상 : 지배이데올로기 및 발전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 북한만치 Bauer의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국가적 특성' (national character)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란 말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북한 사회주의의 독특한 면모는 다름아닌 주체사상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북한은 1972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설정하였다.⁽¹⁰⁾ 이러한 주체사상은 맑스주의·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더우기 그것은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모든 괴압박 인민대중의 참다운 지도노선으로서 만고불멸의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맑스주의·레닌주의의 한국적 토양에서의 창조적 계승·발전형태라고 한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그 귀결이 수령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체사상의 특징이 있다. 실제로 1972년의 신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김일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는 달리 정치적 절대권을 갖는 현실적 권력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권위의 상징으로서 우상화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주체사상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의해 정식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주석 김일성의 정의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되어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10) 1972년 12월 27일 통과된 전문, 11장 149조로 구성된 제2차 개정헌법 제4조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여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이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 1973:264)

이제 북한의 지도자 동지인 김정일에 의하면,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김정일, 1989a: 391).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 만큼 당에 대한 충실햄과 인민에 대한 충실햄은 수령에 대한 충실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김정일, 1989a:394).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와 역사의 개조자로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멋진’ 세계관으로 출발하고 있으나 결국은 김일성의 영도없이는 당과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완수될 수 없다는 ‘추한’ 지배자의 논리로 종착되고 있다.⁽¹¹⁾ 어쨌든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작금에 있어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서 국가의 목표와 방향을 정당화하고 주민의 의식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배이데오로기로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발전이데올로기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사상의 태동, 전개 및 그 실체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김일성이 1930년 6월 카룬에서 개최되었다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자 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했다는 주장은 날조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주체라는 말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1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罕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11) 북한에서 김일성의 우상화된 모습은 다음의 글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1989:395)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나라의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모든 간난신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어섰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땅 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은 “백두산의 경기를 타고나 천지조화를 다 알고 축지법을 써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며, 가랑잎을 뛰우고 대하를 전너가는 만고의 영웅”으로 신격화되고 있다(「내외통신」, 제171호, 1980. 4. 16).

북한의 「백과전서」, 제 3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796)에 의하면 김일성수령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영명한 분이며,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 영도자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 수뇌이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계의 유일한 중심이며… 전당과 전체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흠토를 받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언명되고 있다.

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함으로서 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주체사상은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고, 급기야 1972년의 신사회주의헌법에서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고병철, 1990:88-94).⁽¹²⁾

여기서 가장 궁금한 문제는 맑스주의·레닌주의와 연관된 주체사상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Schurman의 용어를 빌려 본다면 맑스주의·레닌주의는 순수이념(pure ideology)이고 주체사상은 실제이념(practical ideology)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맑스의 사회적 생산관계의 모순이 역사발전의 동력이라는 명제와는 긴장관계를 이룬다. 또한 헤인이 중시하는 사회발전의 물질적 토대는 주체사상이 말하는 의식의 결정적 역학과도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철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원래 생활은 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존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물적생활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정신작용과 물질적 작용이 결합된 사람의 운동이지 물질적 존재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생활과 물질적 부의 생산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신생활, 즉 의식이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라는 전통적인 유물론적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박용곤, 1990:305). 특히 김일성(1977:515)은 스스로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공산주의’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코 모순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주체사상이 교조적 선전원리로서 하나의 ‘수사적 완벽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맑스가 사회적 존재의 반영으로서 의식이 또한 그러한 물질적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¹³⁾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맑스주의·레닌주의와 결코

(12) 서대숙(Suh, 1988:305-313)의 김일성의 연설문 및 보고문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관변학자들은 주체사상의 기원을 항일계릴라 무장투쟁 시기로부터 의도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저작집을 사후적으로 날조·개작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이 18세였던 1930년에 발표했다는 연설문이 1978년에 공표된 것이 그것의 단적인 보기다.

(13) 이에 관하여는 Larrain(1990)을 참고할 것.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주체사상이 그 자체의 논리로서는 완벽하나 현실에 있어서는 선동과 교화를 위한 수사의 의미를 보다 더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의 모든 담론영역과 행동공간을 지배·총괄하는 유일사상체제로서 ‘폐쇄된 정통’(closed orthodoxy)으로 기능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¹⁴⁾

그러므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가능성과 한계는 바로 주체사상이 지닌 자폐성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북한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체제내의 반주변부로 지위상승을 이루었던 면면 그 이후 주변부로의 하락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줄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초반에 주체사상이 공식적 지도이념으로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간적 우연 이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형성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예컨대, 중소분쟁이나 종파싸움), 그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김일성체제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강화의 절대적 필요성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체사상의 근본원칙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로 선언되고 있다. 김일성(1970)과 김정일(1989b)의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이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배격하면서 수령께서 교시한대로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세우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국제주의의 원칙아래 모든 민족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과 상호존중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의 원칙아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치배와 예속을 반대할 뿐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여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보아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나아가야 할 전체적

(14) 이 점은 사실상 러시아혁명 이후 ‘폐쇄된 정통’으로서 교조화된 맑스주의·레닌주의의 문제와도 결코 무관치 않다. 현존 국가사회주의의 위기는 그러한 오도된 맑스주의의 현실적 용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방향과 과제를 발전이데올로기로서 광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강조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은 당, 그리고 당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자가당착적이다. 수령의 지도없이 인민대중의 주체성과 창조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주장의 심층에는 주체사상이 현존하는 김일성 일인중심의 북한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아주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깔려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가 맑스주의·레닌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상, 이론, 방법의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에서 과연 모택동사상 이상의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주체사상은 공개된 발전이데올로기보다 은폐된 지배이데올로기서 보다 더 가능함으로써 그것이 나름대로 지닌 원칙적·실용적 의미를 탄력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일인집권체제의 존속을 위한 체제의 ‘사상적 요새’로서 주체사상은 결국 개방과 개혁의 질곡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나. 자립적 민족경제의 허실

북한은 주체사상이란 지배이데올로기를 1970년대 초반부터 사후적으로 정립하기 이전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¹⁵⁾ 이러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들은 주체사상의 본질적 기초로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에 매진하여 왔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주체사상이란 발전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중요한 하위적 구성요소로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상이 자리매김될 수 있다. 김일성의 견해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 자체의 독특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 1973:398).

(15)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북한의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5를 볼 것.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인민의 필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재화와 용역의 국내생산을 최대화함으로써 자급자족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첫째로, 북한은 농업, 광업, 가공업, 경공업 및 중공업등 모든 분야에서의 필수품을 거의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한다(자력갱생의 산출적 측면을 구성한다). 둘째로, 북한은 원자재, 자본, 기술 및 노동과 같은 자원을 국내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다(자력갱생의 투입적 측면을 구성한다)(Ree, 1989:56).

그러므로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국내시장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내지향적 발전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홍승은, 1984: 247-253). 실제로 김일성(1973:379)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파동이 일어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명령형 계획경제의 전형으로서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최고정책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장악하여 왔다. 다만 197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제정책 입안과 수립의 결정권이 후자로부터 전자로 점차로 이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⁶⁾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하여 정권수립 직후부터 모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북한의지도자들은 민족경제의 자급자족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공업우선,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하였다.⁽¹⁷⁾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전노선이 자본주의적 경공업주도 산업화방식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적 중공업주도(big-push) 산업화방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는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나 ‘청산리방법’과 같은 ‘주체의 관리방식’에 의해 농촌과 도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6) 서대숙(Suh, 1983 참조)에 의하면 1972년의 신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이러한 광범한 정책결정기능의 이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7) 김일성은 일찍부터 중공업우선 전략을 반대하는 집단을 우익기회주의(수경주의)로 매도하였고, 경공업우선 전략에 회의를 품은 집단을 좌익편향주의(교조주의)로 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운영상의 주요한 특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근로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업과 산업분야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을 시도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천리마운동’(1956년), ‘3대 혁명소조운동’(1973년) 그리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74년) 등으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산리방법’이나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러한 군중노선의 대표적인 보기가 된다. 원래 이러한 김일성의 직접적 행정지도에 의한 주민동원과 노동참여의 극대화는 혁명적 군중노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지도방식은 노동자·농민들의 근로의식과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묵시적으로는 당에 의한 지배권을 공장단위에서 협동농장까지 확대하는 기제로도 작용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 필자추가)를 구조화시키는 데”(Halliday, 1983:129)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자립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의’, ‘주장’, ‘선전’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성공과 동시에 굴욕적인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ung, 1983:164)⁽¹⁸⁾.

북한이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자립적 민족경제의 성격을 오타르키와 같은 자급자족적 경제와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근본 이유도 바로 그러한 한 자력갱생적 사회주의적 발전의 일정한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즉, 북한은 이 시기에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기술과 설비의 부족을 체감했고 이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해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1989b:360)은 1982년에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
- (18) 북한경제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우 지난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료를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공개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조차도 정확성이 결여 되어있고 또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 중반이래 경제통계의 공표를 중지해 왔으며, 그나마 설정된 목표에 대한 성취도만을 부문별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GSP(Gross Social Product)의 개념에는 서비스업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중간재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경제와의 비교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19) 이러한 증거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조선로동당 공식문건, 1975년)의 내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표 1〉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계획	주요 과업	주요 계획 목표	주요 실적
제 1 차 1개년 계획 (1947)	• 기업소 복구 조업 • 국영 상공업 확대 • 생산의 급속한 보장 과 생활 개선	•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약 200% 증대 •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30만 톤 증산	•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70% 증대 •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7만 톤 증산
제 2 차 1개년 계획 (1948)	• 공업의 편파성 극복 • 생산품의 질 제고 및 원가 절감	• 공업 총생산 : 1947년 비 41% 증대 • 양곡 수확고 : 1947년 비 13.5% 증산	•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260% 증대 • 양곡 수확고 : 280만 8,552톤
2개년 계획 (1949~1950)	• 낙후된 산업과 강업 의 발전 • 전지역의 경제 복구 토대 조성	• 국영 산업 총생산 : 1948년 비 194% 증대 •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58% 증산	• 국영 산업 총생산 : 계획 1949년 102.9% • 양곡 수확고 : 279만 5,231톤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1954~1956)	• 전전 수준 도달	• 국민 소득 : 1953년 비 75% 증대 • 공업 총생산 : 2.6배 • 양곡 수확고 : 1949년 비 119% 증산	• 국민 소득 : 1953년 비 160% • 공업 총생산 : 2.8배 • 기계 금속 공업 성장을 : 47.5% • 노동 생산성 성장을 : 196% •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26%
5개년 계획 (1957~1960)	• 공업화의 기초 구축 • 의식주 문제 기본적 해결	• 국민 소득 : 약 2.2배 • 공업 총생산 : 2.6배 • 양곡 수확고 : 376만 톤	• 국민 소득 : 2.2배 • 공업 총생산 : 3.5배 • 기계 금속 공업 성장을 : 49.6% • 노동 생산성 성장을 : 140% • 양곡 수확고 : 380만 3,000천 톤 • 계획목표 1년 조기 달성
제 1 차 7개년 계획 (1961~1970)	• 중공업 발전 • 경공업·농업의 동 시적 발전 • 전국적 기술 혁신 • 문화 혁명과 국민 생활의 향상 • 국방·경제 병진	• 국민 소득 : 2.7배 • 공업 총생산 : 3.2배 • 양곡 수확고 : 600~ 700만 톤	• 국민 소득 : 미 발표 • 공업 총생산 : 3.3배 • 기계 금속 공업 성장을 : 18.4% • 노동 생산성 성장을 : 147.5% • 양곡 수확고 : 미 발표 • 계획 기간 3년 연장
6개년 계획 (1971~1976)	• 사회주의 물적·기 술적 토대 견고화 • 산업 설비 근대화 • 기술 혁명 촉진 • 노동자들 힘든 노동	• 국민 소득 : 1.8배 • 공업 총생산 : 2.2배 • 양곡 수확고 : 700~ 750만 톤	• 국민 소득 : 1.7~1.8배 • 공업 총생산 : 2.5배 • 기계 금속 공업 성장을 19.1% • 노동 생산성 성장을 :

에서 해방		155%
		• 양곡 수확고 : 800만 톤 (1976)
제 2 차 7개년 계획 (1978~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 경제의 주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 · 과학화 • 생산 원가 인하 • 절약 운동 강화 • 수송의 논대화 • 주민생활 향상 • 독립채산제 강화 • 대외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소득 : 1.9배 • 공업 총생산 : 2.2배 • 양곡 수확고 : 1,000만 톤 • '1980년대 10대 전망 목표'와 '4대 자연개조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소득 : 미 발표 • 공업 총생산 : 2.2배 • 전력생산 성장을 : 168% • 철강 생산 성장을 : 185% • 공작기계 생산 성장을 : 167% • 양곡 수확고 : 1,000만톤 (1984) • 시멘트 · 합성수지 · 철물 생산 목표 달성

출처 : 김세원, 1990:176.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애초부터 ‘유무상통’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분업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지금까지 남아도는 물자만을 수출해왔고, 그것도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구상무역의 형태로 다른 나라들과 교역에 임해왔는지는 실제의 관행을 따져보아야만 정확히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8차례의 단기 · 중기 · 장기 경제계획을 집행해 왔으며, 현재는 1985년~1989년의 조정기를 거쳐 제 3 차 7개년계획을 실행중에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에 의해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동안까지는 고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세계체제내의 반주변부로 진입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산업국가로 이행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 1 차 7개년계획 기간에는 국민소득, 공업용 생산, 농업용 생산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복합적 요인이 개재되어 있다. 정상훈(1983:158-171)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전쟁으로부터의 복구기에 유휴생산설비와 자원, 그리고 반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력의 동원에 의해 외연적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공식적 주장과는 달리, 이 시기에 소련 및 동구

〈표 2〉 북한의 권역별 무역추이, 1971~1985

(단위 : 백만달러, %)

	대 공 산 권								대 서 방 권	
	수 출		수 입		무 역	계		수 출		
	금액	구성비 ¹⁾	금 액	구성비 ²⁾		금 액	구성비 ³⁾	금 액	구성비 ¹⁾	
1971	245.2	(78.3)	493.1	(88.4)	-247.9	738.3	(84.8)	67.9	(21.7)	
1974	424.6	(61.4)	574.6	(42.3)	-150.0	999.2	(48.8)	267.2	(38.6)	
1975	482.5	(59.9)	634.9	(55.0)	-152.4	1,117.4	(57.0)	323.4	(40.1)	
1980	865.6	(52.7)	939.3	(54.9)	-73.7	1,804.9	(53.8)	775.9	(47.3)	
1981	661.1	(61.1)	768.9	(54.4)	-108.8	1,429.0	(57.3)	419.9	(38.9)	
1982	873.3	(67.8)	778.1	(54.2)	95.2	1,651.4	(60.6)	415.5	(32.2)	
1983	756.7	(60.8)	684.6	(41.2)	72.1	1,441.3	(49.6)	488.4	(39.2)	
1984	766.0	(59.7)	696.2	(45.2)	69.8	1,462.2	(51.8)	518.1	(40.3)	
1985	823.9	(64.8)	1,109.5	(58.4)	-276.6	1,942.4	(61.0)	452.3	(35.2)	

	대 서 방 권				총 무 역 액				합 계
	수 입		무 역		계		수 출	수 입	
	금액	구성비 ²⁾	수 지	금 액	구성비 ³⁾	수 출	수 입	수 지	
1971	64.5	(11.6)	3.4	132.4	(15.2)	313.1	557.6	-244.5	870.7
1974	782.6	(57.7)	-515.4	1,049.8	(51.2)	691.8	1,357.2	-665.4	2,049.0
1975	520.4	(45.0)	-197.0	843.8	(43.0)	805.9	1,155.3	-349.4	1,961.2
1980	771.0	(45.1)	4.9	1,546.9	(46.2)	1,641.5	1,710.3	-68.8	3,351.8
1981	644.8	(45.6)	-244.9	1,064.7	(42.7)	1,080.0	1,413.7	-333.7	2,493.7
1982	657.5	(45.8)	-242.0	1,073.0	(39.4)	1,288.8	1,435.6	-146.8	2,724.4
1983	975.5	(58.8)	-487.1	1,462.0	(50.4)	1,245.1	1,660.1	-415.0	2,905.2
1984	843.3	(54.8)	-325.2	1,361.4	(48.2)	1,284.1	1,539.5	-255.4	2,823.6
1985	790.4	(41.6)	-338.1	1,242.7	(39.0)	1,285.2	1,899.9	-614.7	3,185.1

주 : 1) 총수출액에 대한 비율임.

2) 총수입액에 대한 비율임.

3) 총무역액에 대한 비율임.

출처 : 연하청, 1990:286.

권으로 부터의 29억달러에 해당되는 막대한 원조의 덕택으로 그러한 외연적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북한연구소, 1984:698).⁽²⁰⁾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노동력부족에 부가하여 외국원조의 감소를 차후 겪으면서 외연적 성장을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투입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따

(20) Ree(1989:57-8)에 의하면, 최근 쏘련 학자들은 전후복구 2개년계획기간(1954 ~56) 동안에 이러한 원조가 북한경제의 자본공급의 75.1%에 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북한 국가예산의 24.6%를 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라서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해외시장에서 수출증대를 통해 의화를 보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역적 자를 야기하는 근인(近因)이 되었으며, 또한 대략 80억달러라는 외채의 부담을 안게 된 원인(遠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모순적 측면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북한이 197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무역적 자에 시달려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961~67년 기간의 연평균 19.2%에의 1971~76년 기간의 연평균 30.3%로 증가하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켜 주고 있다.

일단의 논자들은(예컨대, Halliday, 1981:890) 북한이 해외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달성한 이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대외무역의 방향과 수출입상품 구성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정당한 해석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북한의 해외무역을 볼 때 대공산권편중에서 대서방권지향으로 급격한 방향전환이 1970년대 초반이래 이루어져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대공산권 무역에서는 비교적 혹자를 이루었으나 대서방권 무역에서는 일관적으로 적자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소련, 동구 및 일본이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원유나 석유관련제품을 국제시장보다 훨씬 싼 가격(1/4~1/3)으로 수입한 반면에(이점이 혹자의 원인이다), 일본으로부터는 기계류, 수송장비 및 제조품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후자의 사실은 북한의 선진 기술과 설비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은 근래에 들어 제조품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유무상통’과 ‘호혜평등’의 원칙과 상치되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

IV. ‘우리식 사회주의’의 성과와 한계

일찍이 Wallerstein(1979c:107-112)은 북한이야 말로 세계체제내에서 사회주의적 자립적 발전노선에 충실한 후기혁명 국가로서 반주변부의 지위를 확

보한 보기드문 사례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²¹⁾ 이러한 면에서 세계체제론의 독특한 발상의 적실성과 함께 북한의 지나온 45년동안의 종속반전의 성과의 교훈을 발견할 필요가 제기된다.

현존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혼돈과 위기에서 그들의 자구책으로 나타난 비(非)사회주의적 방향의 추구는 세계체제론의 시각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적해주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대내적으로 국가관료계급에 의해 권력이 장악된 상태에서 집합적 사용가치의 창출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이윤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상 그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와중에 머물러 있는 ‘국가자본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세계체제론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Chase-Dunn, 1982:34). 이러한 세계체제론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에 의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호를 천명해온 북한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확립한 후기혁명 국가로 파악될 수 없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이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1세대라는 점에서 ‘프로레타리아 섭정체제’(regency of proletariat)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자본주의적 종속에 힘들되지 않으려고 분투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여 완전히 자유로웠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점이 바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역설이자 동시에 자력갱생 원칙의 모순적 측면이다.

북한이 종속반전에 과연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는가는 ‘단절전략’의 기본적 성격에 충실했던 정도에 의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발전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강조한 것 만큼 자기중심적 발전의 속성을 가동한 것으로 판단되기 어렵다. 북한의 ‘선전과 선동’과는 달리, 북한의 산업화는 상당한 부분이 소련 및 공산권의 원조에 의해 도모되어 왔으며,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적자기조위에 놓여 있어 왔다. 더구나 북한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증하는 대서방권 무역의존

(21) 이러한 측면과 연관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긍정적 평가로는 Cumings(1974) 및 Brun and Hersh(1976)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와 이러한 평가는 비판적으로 역전되고 있다(예컨대, Foster-Carter, 1977, Brun, 1978 및 Halliday, 1983 참조). 이에 대한 국내학자의 종합적 평가로는 이은죽(1988)이 매우 유용하다.

의 성격이 산업화의 심화를 위한 자본집약적 기술과 설비의 도입에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자급자족적 민족경제의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민족경제가 자기완결적 재생산구조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내부지향적 자립적 발전전략은 국토분단 아래에서 만성적 노동력부족, 본원적 자본결여, 희소한 경작지, 그리고 협소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북한에게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처음부터 문제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더욱기 막중한 국방비부담을 안은채 진행된 중공업우선 전략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농산물의 공급과 다양한 생필품의 자급자족은 규모의 경제면에서 볼 때 생산비의 앙등을 수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산업화의 심화가 어려운 여건에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일부 제조품의 특화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속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실책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초기에 폐쇄경제에 가까운 자급자족적 오타르키에 기초하였다는 점이다. Senghaas(1988:39-42)의 견해에 따르면 자력갱생의 발전전략은 그러한 오타르키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무역에 참여는 ‘단절’(dissociation)과 ‘통합’(association)의 연속성 위에서 선택적으로 추구될 전략적 성질의 문제인 것이다. 이점은 Amin(1985:67)이 ‘단절’(delinking)이 모든 외국의 과학, 기술 및 사상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²²⁾ 따라서 북한이 후기에 예속경제에 대립적인 의미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최초의 극심한 단절에 따른 구조적 결함이 ‘혁신-전파’(innovation-diffusion)의 효과를 박탈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이 장애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직된 중앙계획경제는 Kornai가 말하는 ‘연성예산제 약’(soft budgetary constraint)에 의해 과잉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원부족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최고의 유일한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의존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상당

(22) 물론 Amin(1988:57-58)은 Senghaas와는 달리 단지 특정 국가가 해외 무역에 참여하는가의 여부보다는 국제화된 가격체계의 ‘합리성’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단절’의 주요한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히 융통적인 입장을 보여왔다.⁽²³⁾ 이러한 실용주의적 자세는 특히 북한의 대외 무역정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1984년 9월 8일 제정된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이 그것의 좋은 징표가 될 것이다. 1984년은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을 완료하는 해로서 그것이 이렇다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서방권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이 중단되었고 또한 공산권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불가피하게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연하청, 1990:255).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맑스주의·레닌주의의 현란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기본적 이론 토대는 주체사상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것의 극명한 경우로서 ‘주체의 국가론’을 보면(이진규, 1990:180),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소멸론이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스주의·레닌주의의 기약과는 달리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더라도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국가의 기능은 쇠퇴하지만 전사회적 정치조직으로서 국가의 기능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가 잔존하는 한 당의 노동계급에 대한 역할과 국가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주체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령론의 이론적 전제로서 진술되고 있다고 믿어진다. 환언하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의 완곡한 표현으로서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민의 지배와는’(volksherrschaftlich) 무관한 김일성 ‘개인국가’(personal state)라는 비민주적 왕조체제의 수립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특성을 갖는 주체사상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한 발전이데올로기로서 제 구실을 수행하기에는 명확한 결합을 지닌다. 북한이 종속반전의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한계는 주체사상의 그러한 이중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성과 자체가 한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의해 일제 식민지적 경제의 기형성과 사회의 기생성을 타파하는 데 성공적이었음은 명백하다. 비록 경제적 난관에

(23)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소련의 판변 정치경제학교과서가 자력갱생의 원칙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방지하는 ‘좌익’ 수정주의로 매도했다는 점이다(Zagolow, 1990:371-2).

직면해 있는 것이 북한의 작금의 현실이긴 하지만, 김일성정권은 근로대중(노동자·농민·병사·노동인텔리)의 생계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여 왔다. 대부분의 인민들은 조세부담없이 교육, 위생, 주거, 의복 및 식량공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물론 북한 인민들은 현재 소비재의 절대적 부족과 제한된 식량배급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나 자본주의적 착취의 제거에 따라 계급간의 위화감은 상당히 극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느 사회주의 나라보다도 지극히 폐쇄되어 있는 전체주의 국가임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박탈되어 있고 그들의 8시간 노동제가 480분 연속노동에 의해 절대적 잉여가치가 비임금형태로 착취받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나라를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사회의 재계총화현상과 이에 수반되어 등장한 Djilas의 ‘새로운 계급’의 특권형성이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인민을 핵심군중(당과 정부관리), 기본군중(노동자, 농민, 사무원), 그리고 북접한 군중(과거 지주, 자본가, 종교인의 자손)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보수, 식량배급, 주택배정, 의료대우, 승진 및 학교입학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이창수, 1985:223). Roemer가 말하는 이른바 ‘신분적 착취’(status exploit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은 Halliday(1983:114)의 표현대로 수수께끼의 나라이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북한을 그 지도자들이 주장하듯이 ‘지상낙원’을 전설해 준 것도 아니며 또한 외부의 비판자들이 경멸하듯이 ‘수용소군도’로 전락시켜 준 것도 아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에는 극심한 개인승배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Pye(1989:224)의 지적대로 김일성의 우상화는 과거의 가부장적 유교전통과 현대의 레닌주의적 집권주의의 결합의 산물일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우상화는 법의 지배와 제도화보다도 개인의 인격화된 지도력이 보다 큰 힘을 북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역사적 예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는 위정자의 눈에는 ‘가장 좋은 사회’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민들에게는 ‘가장 삭막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Halliday, 1983:144).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러한 사실을 인민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념적 교화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

로 북한이라는 것이다.⁽²⁴⁾

그러면 이러한 북한 사회주의의 후진성은 어디서 유래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Edelstein(1981:256)이 간파한 대로 북한이라는 ‘결별 사회주의’ 국가의 두가지 본질적 모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한 프로레타리아의 정치적 미숙성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전위정당을 통해 지배하지 못하는 정치적 모순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지탱할 만큼 생산력이 높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계획경제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경제적 모순이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나름대로 평등주의와 성장주의의 조화를 시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지향적 자립적 발전전략의 애로로 인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V. 맷 음 말

이 논문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체제내에서의 종속반전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려고 시도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북한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난 45년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로서 작금 사회주의적 발전 자체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관찰을 통해 볼 때 세계체제 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종속반전의 실험은 현단계에서 좌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근래에 이르러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개방경제의 장점만을 취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입증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전설은 북한의 여러가지 내외적 발전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과도한 공포 아래에서 주체사상에 의해 김일성 개인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지속적 발전을

(24) Halliday(1983:145)는 Checa라는 폐루의 혁명가와의 빠있는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저들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싸워 승리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진정으로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일생동안 가본 나라들 가운데 가장 쟈막한 나라입니다. 시인으로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내 가슴에 황량한 사람이 휘몰아치는 듯 합니다.”

위한 잠재력을 소진시켜 왔다. 물론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체계로부터의 주변화 압력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우가 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요한 사실은 북한이 일제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동질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종속을 거부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사회주의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발전경험은 사실상 소련·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 의존과 아울러 자본주의세계경제내의 부분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종속의 이중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존의 최대과제는 김일성-김정일 개인지배체제를 유지·존속·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 발전의 병목현상을 모면할 수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구하느냐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절대 최고의 지도자인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개방과 개혁의 범위 안에서의 실용주의적 조치를 신중하고 주의깊게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은 결국 김일성사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후계구도의 난맥상이 정리되는 양상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포기의 기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주민향배에 따라 종국적으로 판가름날 성격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천적 대안으로서 현존 사회주의의 쇠퇴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논리적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²⁵⁾

발전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은 수사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그리고 국방의 자위 그 어느 하나 흡잡을 수 없는 고귀한 가치지향이다. 그러나 대중의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으로 연결되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그러한 현란한 발전가치로 도급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일종의 사회주의적 왕조체계 (socialist dynasty)라 할 수 있는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성과와 한계는 바로 그러한 주체사상의 모순적 양면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통한 종속반전의 시도를 이론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 주체사상이기도

(25) 최근 북한의 사상·이론 학습의 강화가 그러한 이론적 수세에 대한 적극적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간부들에 행한 담화 참조, 1989.5.5).

하여 동시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인 것이다.

Vico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생존하는 현대의 ‘인간사회’에서 사회주의의 가치는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혹은 김일성주의와 같은 교조주의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가 사상된 사회주의, 그것도 ‘개인국가’의 지배기능만이 강조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참여를 배제한 채 개인의 우상화에 의해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유토피아적 허구일 뿐이다.

참 고 문 헌

고병철

1990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pp. 87-111.

김세원

1990 “대외 경제관계와 ‘딜레마’, ”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pp. 172-200.

김일성

1970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3 『김일성 저작선집』, 제 3권, 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7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부.

1990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 9. 24.

김정일

1989a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일꾼들과 한 담화(1986년 7월 15일), 동아일보사,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pp. 391-403.

1989b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김정일의 논문(1982년 3월 31일), 동아일보사,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pp. 355-369.

박용곤

1990 『주체의 세계관』, 동경 : 구월서방.

북한연구소

1984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송두율

1988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pp. 104-116.

연하청

1990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 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

- 남대 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pp. 253-299.
- 이운죽
1988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개발의 종속적 성격,” 이운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83-131.
- 이진규
1990 『세시대 정치학원론』, 동경: 조국.
- 이창수
1985 “사회정책과 체제발전,” 김준엽, 스칼라피노(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pp. 216-243.
- 정상훈
1985 “경제계획과 성과,” 김준엽, 스칼라피노(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pp. 136-175.
- 홍승은
1984 『자립경제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Amin, S. (trans. by M. Wolfers)
1985 *Delinking: Toward a Polycentric World*, London: Zed Books.
Amin, S.
1988 “Comment on Senghaas,” *Review*, XI:55-66.
Bahro, R.
1978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London: Verso.
Baran P.
1967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Bodenheimer, S.
1971 “Dependency and Imperialism: The Roots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pp. 155-182, in K.T. Fann & O.C. Hodges (eds.), *Readings in US Imperialism*, Boston: Porter Sargent.
Brun, E. & J. Hersh
1976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Brun, E. & J. Hersh
1978 “North Korea: Default of a Model or a Model in Default?,” *Monthly Review*, 9(25):19-28.
Chase-Dunn, C. & R. Robinson.
1979 “Cycles, Trends and New Departures in World-System Development,” pp. 276-296, in J.W. Meyer & M.T. Hannan (eds.),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Syste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Chase-Dunn, C.
1982 “Socialist States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pp. 21-56, in Chase-Dunn (ed.),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Clark, C. & D. Bahry

- 1983 "Dependent Development: A Socialist Varia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271-253.
- Clark, C., Doran, C.E., & G. Modelska.
1983 "Introduction," C.E. Doran, G. Modelska, C. Clark (eds.), *North/South Relations: Studies of Dependency Reversal*, New York: Praeger.
- Cumings, B.
1974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27-41.
- Duvall, R.
1978 "Dependence and Dependencia Theory: Notes Toward Precision of Concept and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51-78.
- Edelstein, J.C.
1981 "The Evolution of Cuban Development Strategy, 1959~1979," pp. 225-266, in F. Munoz (ed.), *From Dependency to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 Evans, P.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Foster-Carter, A.
1977 "North Korea: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A Critical Appraisal,"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1):45-77.
- Galtung, J.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2:81-117.
1976 "Conflict on a Global Scale: Social Imperialism and Subimperialism-Continuities in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World Development*, 4:4-20.
-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New York: Harper and Row.
- Gochman, C.S. & J.L. Ray
1979 "Structural Disparities in Latin America & Eastern Europe, 1950~1970," *Journal of Peace Research*, 16:231-254.
- Halliday, J.
1981 "The North Korean Model: Gaps and Questions," *World Development*, 9 (9/10):889-905.
1983 "The North Korean Enigma," G. White, R. Murray & C.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Kim, Sung-Kook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European Relations with USSR: A Historical and Time-Series Analysis, 1945~1979*, Indiana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Mahler, J.A.
- 1980 *Dependenc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Mandel, E.
- 1978 *The Second Slump*, London: New Left Books.
- McCormack, G.
- 1981 "North Korea: Kimilsungism Path to Socialis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3(4):50-61.
- Page, G.
- 1962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 Integration Approach*,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Pye, L.W.
- 1989 "유교적 레닌이스트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십, 중국, 북한, 베트남." 김달중, 스칼로피노(공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법문사.
- Ray, D.
- 1973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Three Basic Fallacies," *Journal of Inter-American and World Affairs*, XV:4-20.
- Ray, J.L.
- 1983 "The Cuban Path to Dependency Reversal," pp.223-238, in C.E. Doran, G. Modelska and C. Clark (eds.), *North/South Relations: Studies of Dependency Reversal*, New York: Praeger.
- Ree, E.
- 1989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63~19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5:50-73.
- Senghaas, D.
- 1988 "European Development & the Third World: An Assessment," *Review*, XI (1):3-54.
- Skocpol, T.H. & E.K. Trimberger.
- 1978 "Revolution & the World-Historical Development of Capitalism," pp.121-138, in B.F. Kaplan (ed.), *Social Change 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Beverly Hills: Sage.
- Suh, Dae-Sook
- 1983 "Kim Il-Sung: His Personality and Politics," pp.43-64, in R.A. Scalapino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88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Wallerstein, I.
- 1979a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1979b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pp.387-

- 415, in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1979c "Semiperipheral Countries and the Contemporary World Crisis," pp. 95-118, in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White, G.
- 1975 "North Korean Ch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Independenc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April-June:44-54.
- Wright, A.
- 1987 *Socialisms: Theories and Practices*, Oxford: Oxford Univ. Press.
- Zaslavsky, V.
- 1984~5 "Soviet Society and the World Systems Analysis," *Telos*, 62:155-168.
- Zimmerman, W.
- 1978 "Dependency Theory & the Soviet-East European Hierarchical Regional System: Initial Tests," *Slavic Review*, 37:604-623.
- Larraín, J. (신광영 역)
- 1990 『사적 유물론과 사회이론』, 서울:나남.
- Zagolow, N.A. (윤소영 역)
- 1990 『정치경제학 교과서 Ⅱ-2』, 서울:세길.